



포근한 날씨 원앙들의 힘찬 날갯짓

16일 오후 천연기념물인 원앙 수십마리가 집단서식하는 화순의 한 저수지에서 암수 원앙들이 수면을 헤치며 날아오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롭 07시 17분 해김 18시 16분

달롭 20시 29분 달김 08시 26분

## 오후에 빗방울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 지역이겠다.

광 주	흐리고 가끔비	3/7°C
목 포	흐리고 가끔비	3/6°C
여 주	흐리고 가끔비	5/6°C
나 주	흐림	2/7°C
완 도	흐리고 가끔비	4/6°C
구 레	흐림	2/6°C
강 진	흐리고 가끔비	3/6°C
해 남	흐리고 가끔비	3/6°C
장 흥	흐리고 가끔비	3/6°C
순 천	흐리고 가끔비	4/6°C
영 광	흐리고 가끔비	1/6°C
진 도	흐리고 가끔비	3/6°C
전 주	흐리고 가끔비	2/9°C
군 산	흐리고 가끔비	2/9°C
남 원	흐리고 가끔비	1/7°C
흑산도	흐리고 가끔비	3/5°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증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0.5~1.0m	관심	높음	높음
	면비다	북동~동	1.0~2.5m			
남해	서부 앞비다	북동~동	0.5~2.0m			
	면비다	동~남동	1.0~2.5m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1.0~2.0m	03:26	08:43	
	면비다	북동~동	2.0~4.0m	목포	15:50	21:05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2.0~4.0m	여수	10:36	04:17
	면비다	북동~동	2.0~4.0m		22:49	16: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화)
날씨	-1/8
최저/최고	-1/7
날짜	19(수)
날씨	-2/7
최저/최고	-2/7
날짜	20(목)
날씨	-3/8
최저/최고	-3/9
날짜	21(금)
날씨	-1/10
최저/최고	-1/10

## 광주·전남은 단속 대상 한곳도 없어 '실효성' 논란

■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적발 과태료 부과 한다는데

### 조리·세척시설 갖춘 곳으로 제한 자체가 허점 지적

지난 16일 밤 9시 광주시 북구 A장례식장 한 접객실에선 70명의 조문객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엔 떼지 고기·방울토마토·떡·김치·쥐포 등이 놓인 일회용 접시가 놓여 있었다. 밥·국그릇은 물론 수저·젓가락·컵도 모두 일회용이었다. 조문객이 자리를 일어나면 비닐 틈으로 일회용품을 썩쓸이한 뒤 또다시 각종 일회용품이 단

식탁에 오르내리길 반복했다.

지난 14일부터 객실내에서 음식점처럼 직접 음식을 만들어 조문객들에게 내놓는 장례식장에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지만 광주·전남에선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대상이 되려면 조리·세척시설을 갖춰야하는데, 광주·전남지역엔 이를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단속 대상 장례식장이 전국적으로 10%에 불과해 애초 취지인 일회용품 줄이기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전남지역 장례식장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훈례·회갑 연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들 14개 장례식장에서도 상주나 삼조회사 층에서 음식을 들여와 제공할 때는 일회용품 규

례식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엔 163개의 장례식장이 있다.

광주·전남지역 장례식장 중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장례식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들 14개 장례식장에서도 상주나 삼조회사 층에서 음식을 들여와 제공할 때는 일회용품 규

제를 받지 않는다.

장례식장 업주들은 이 법에 허점이 많아 유망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지역 B장례식장 업주는 "광주·전남지역에 조리·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단속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는데, 환경부의 애초 취지대로 일회용품이 줄어들겠느냐"며 "설령 규제대상시설이 되더라도 주인이 상주에게 일회용품을 팔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어떤 근거로 단속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혹시 부정한 소식 알려질까 말 아끼고 외부인 출입 꺼려

### 부정선거 경찰 수사…서광주농협 이사 선거 투표장 가보니

서광주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가 진행된 지난 14일, 서광주농협 회의실 주변은 외부인의 출입을 극도로 제한했다. 새로운 조합을 이끌어갈 이사 선출을 앞두고 축하의 분위기는 커녕, 혹시 부정한 소식이 전해질까 '쉬쉬'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오전 이사 후보에 나선 후보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조합원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또 다시 터진 금품 부정 선거에 외부인에게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조합에 모여있던 일부 조합원들은 돈 봉투가 오간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

을 의식한 듯 "이런 이야기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야"라며 불안감도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거듭된 금품 부정 선거로 얼룩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달라"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조합원은 많지 않아보였다.

일부 후보는 정견 발표를 통해 수차례의 금품 부정 선거로 '비리(非理)의 온상'이라는 오명(汚名)을 썼던 서광주농협에서 또다시 돈 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상식에 맞는 이사가 돼 조합원들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투표장 안팎에서는 후보들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울어졌다. 한 대의원(65)은 "기뜩이나 금품 부정 선거 논란으로 외부 시선도 끊지 않은데 부적합한 후보들이 난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광주농협은 이날 선거를 통해 유덕동(9명), 동운동(6명), 삼부동(7명), 광천·기타동(2명) 등 4곳에서 사퇴한 2명을 제외한 22명의 비상임 이사 후보 중 10명을 임기 4년의 이사로 선출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간판정비 사업 돈받고 낙찰 도와 준

### 나주 공무원·대학 교수 등 10명 입건

간판정비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6일 나주 지역 '도시재생사업'(간판정비)을 낙찰받게 도와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나주시 공무원 김모(46)씨를 구속하고 대학교수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는

가 하면, 인턴사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하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간판 정비업체 대표 최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유해업소 등에서 업체 대표 최

씨로부터 낙찰을 도와준 대가 등의 명목으로 13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매수, 최씨업체가 낙찰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북·전·현직 대학교수 3명은 강성군 '황룡시장 간판 개선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최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독고 공무원 김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 등 디자인 업체 대표 3명은 인턴 직원 2명이 일하는 것처럼 하위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청년 취업인턴제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센터는 이를 위해 국내 학의학 및 방사선치료 의료기관들의 방사선 안전·방호 현황을 조사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표준 이행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방사선 치료 및 진단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평가 시스템, 종사자 및 일반인 관리를 위한 피폭선량 관리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AEA(국제원자력기구) 권고 사항을 참조해 정부·규제기관·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의료방사선의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에는 전남의대 학의학교 실 송호현 교수의 책임 하에 전남대·고려대·이대목동병원·조선대 등 4개 기관의 연구팀이 참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www.guemyong.co.kr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총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총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 총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총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폼 네코타일(직사각형) 네코타일(경사각형)

www.guemyong.co.kr

(주)금용건설 InstaFloor STAINLESS EXPERT

SGS ULKAS SGS ULKAS

전국 시, 군, 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인문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클래식기타, 교회음악)	○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성악송라이터 등)	○	○
	총계	○○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합격자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 2. 21(금) ~ 2. 24(월)

· 전형일 : 2014. 2. 25(화) 오후 2시

■ 특별전형 · 전학과 : 지역인재양성 전형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

**광신 대 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